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The Difference of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between Nursing student and General University student about People with Mental Illness

최하은·염승민·조지애·이소영·양유정·장세영·김단비·황지나 지도교수: 김수진

I. 연구의 필요성

-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편견과 낙인,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중들의 태도는 정신과적인 치료의 효율성을 결정하고 정신 장애인의 예방, 치료,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바탕이 되고자 함

II. 연구의 목적

-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I. 연구의 방법

연구 설계

- 서술적 조사연구
- 상관관계 연구

연구 대상

G-power 3.1.9.2
간호대학생 88명, 일반대학생 88명 (총 176명)
C시의 일개대학교 간호대학생 95명, 일반대학생 94명 (총 189명)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2017년 6월 12일 ~ 8월 11일, 오프라인 설문조사

연구 도구

- 사회적 거리감 : 사회적 거리감 설문지 (SDQ, Cronbach's α = .888)
- 태도 : CAMI III (권위주의 Cronbach's α = .632, 자비심 .671, 사회생활 제한 .743, 지역정신보건개념 .760)

자료 분석 방법

SPSS 24.0을 이용. 평균, 백분율, 빈도, 표준편차, ANOVA, t-test, 사후검증 분석(dunca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IV. 연구 결과

표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차이

| | Nursing student | General university student | t-value |
|----------------------------------|-----------------|----------------------------|----------|
| Authoritarianism | 3.73 ± .40 | 3.51 ± .44 | 3.726*** |
| Benevolence | 2.35 ± .36 | 2.50 ± .51 | -2.241* |
|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 2.36 ± .39 | 2.54 ± .57 | -2.596* |
| Social restrictiveness | 3.57 ± .43 | 3.43 ± .53 | 2.012* |
| Social distance | 3.38 ± .29 | 3.25 ± .39 | 2.591* |

*p<.05, ***p<.001

표2.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불쾌경험에 따른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 | An unpleasant experience | | | | F-value |
|----------------------------------|--------------------------|------------|------------|-------------|-----------|
| | None | Not much | Sometimes | Often | |
| Authoritarianism | 3.64 ± .38 | 3.70 ± .43 | 3.50 ± .46 | 3.03 ± .73 | 4.560** |
| Benevolence | 2.38 ± .46 | 2.37 ± .42 | 2.51 ± .52 | 3.18 ± 1.11 | 4.933** |
|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 2.43 ± .47 | 2.41 ± .46 | 2.50 ± .44 | 3.08 ± 1.26 | 2.587 |
| Social restrictiveness | 3.59 ± .45 | 3.56 ± .44 | 3.32 ± .46 | 2.43 ± .70 | 10.983*** |
| Social distance | 3.38 ± .34 | 3.35 ± .29 | 3.20 ± .31 | 2.58 ± .74 | 9.620*** |

*p<.05, **p<.01, ***p<.001

표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

| | Authoritarianism | Benevolence |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 Social restrictiveness | Social distance |
|----------------------------------|------------------|----------------|----------------------------------|------------------------|-----------------|
| Authoritarianism | 1 | | | | |
| Benevolence | -.544 (p<.001) | 1 | | | |
|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 -.536 (p<.001) | .591 (p<.001) | 1 | | |
| Social restrictiveness | .578 (p<.001) | -.508 (p<.001) | -.708 (p<.001) | 1 | |
| Social distance | .474 (p<.001) | -.459 (p<.001) | -.554 (p<.001) | .637 (p<.001) | 1 |

V. 결론

-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중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 정신 관련 교과목 수강경험이 정신 장애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
-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불쾌경험이 있을수록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 제한, 사회적 거리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 시설 종사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얻는 경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인터넷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
-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덜 권위적이고, 더 자비로우며, 정신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덜 제한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념이 더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

VI. 제언

- ✗ 조사대상자가 충청도 C시 소재의 대학생으로 제한되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 ✗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변인에 대한 범위를 확장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 정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정신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육, 정신 장애인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